

# 현재에 충실할때 '생사불이'

## 철학연구회 '생사에 대한 철학적 성찰' 학술대회

"무릇 죽음이란 형상은 없어 지되 정신만은 없어지지 않는다." <불설보요경>

"죽음은 모든 수고로부터 인 간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품 에서 안식케 한다." <신약성서 계시록>

인간은 번뇌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종교를 만들어 내고 의지해 왔다. 부처 님의 출가동기도 '생사(生死)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 고자 함이었다. '살과 죽음', 이 영원한 화두를 풀기 위해 철학연 구회(회장 황경 식)는 6월 17일

'생사에 대한 철학적 성찰'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.

이날 대회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생 사에 대한 공통된 입장은 '최선을 다하 는 현재의 삶'을 통한 '생사불이(生死 不二)'였다.

순천대 안옥선 교수는 '불교에서 보 는 삶과 죽음: 생사윤회를 벗어난 삶의 추구'란 논문을 통해 △오온 △12입처 △무상-고-무아 △윤회와 열반 등 의 초기불교 경전 내용을 중심으로 불 교의 생사관에 대해 분석적 접근을 시 도했다.

안 교수는 우선 '생과 삶'을 '태어 남'과 '살아감'으로 분리해 태어난은 '감각기능(육입)을 갖춘 오온의 나



안옥선 교수



배철현 교수

와 열반으로 귀결지을 수 있 으며 이는 곧 현재의 삶을 적 극적으로 살고 죽음을 삶의 일부본으로 이해하려는 생사 불이로 표현할 수 있다"고 주 장했다.

"죽는 것도 이득이다: 바울 의 죽음관"이란 주제로 기독교의 생사관을 설명한 서울대 배철현 교수는 구약성서와 유 대교적 부활신앙 그리고 그리 스도교 선교의 맥인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을 중 심으로 논리를 펼 쳤다.

이것은 곧 고통, 걱정, 근심, 공포 등의 현실적 삶의 무게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

을 접목시킨 삶과 죽음에 대한 기독교 의 신학적 논리에 근거한다.

"죽음이 이득이다"라고 표현하고 있 는 <성서-빌립보서>의 행간의 의미를 하나님에 정한 죽음을 형벌로 이해하 는 것이 아닌 자연의 필연 또는 노동과 불행으로부터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해 할 수 있다.

배 교수는 "메소포타미아와 구약성 서로 대표되는 헤브라이즘 전통에서 죽음은 속명이지만 이것은 나아가 하 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이성적이 고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편적 관문인 동시에 '선교의 최고 선'이다" 고 설명했다.

노병철 기자 sasiman@buddhapia.com

**안옥선 교수** 죽음,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통로

**배철현 교수** 지혜로운 삶 살기위한 방편적 관문

남'을 의미하고 살아감은 '오온에 집착 하는 방식으로 감각기관이 활동하는 과정'이며 죽음은 '수명, 온기, 의식이 사라져 감각기능이 멈추고 오온이 흩 어지는 것'이라고 생사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.

안 교수는 "죽음 또한 태어남과 살아 감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 셋은 모두 윤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일 뿐이다"며 "죽음은 새로운 생으로 이어 져 고통을 연장시키는 통로인 반면 마 음과 의식의 개발(수행)로 열반에 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"고 밝혔다.

특히 안 교수는 "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는 삶을 부정하면서도 긍정하고 죽음을 회피하면서도 활용하는 윤회

### '여말선초 불교사상 동향'

#### 보조사상학 학술대회

"만약 여말선초 시기에 불교계가 새로 운 불교 사상과 지도 이념을 구축했다면 조선은 '억불승유' 정책이 아닌 불교 사상을 정치이념에 반영했을 것이다."

창원대 이택진 교수는 동국대 다학관 에서 6월 17일 열린 보조사상연구회 학술 대회에서 고려 말 불교계의 사상적 동향 과 폐단에 대해 지적했다.

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 '13~14세기 고려 불승들의 유교관에 대한 일고찰'에



서 △고려 후기 대표 고승들의 유교관 △혜심의 간화선 부흥운동 △14세기 주 자학의 수용 등 고려시대 유·불사상의 흐름을 구체적 예시와 설명을 통해 풀어 나갔다.

이 교수는 또 "14세기 후반에 이르러 성리학은 불교의 사상적 측면은 물론 불

교의 종교성과 정체성마저 부인하기에 이른"며 "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불교 사상의 발전과 지도이념의 부재 그리고 불교 내부의 폐단에 기인한다"고 주장 했다.

이에 대해 목포대 최연식 교수는 "당시 고려의 불교계가 불교가 지켜야 할 '종교 적 영역'을 방기하고 정치적 논리에 대해 '정신적 원리'로 대응한 것에 대한 해석 적 비판은 타당하지만 고려시대를 대표 하는 스님들의 사상적 차이를 13세기와 14세기로 명확히 구분 지을 만한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"고 지적했다.

노병철 기자

### '법화경 현대적 고찰' 주제 천대불교문화연구 학술대회

천대불교문화연구원(원장 이재창)은 '법화경의 현대적 고찰'이란 주제로 '2006 법화경 연구 특집 춘계학술대회'를 6월 17일 서울 관문사에서 개최했다.

'<법화경>의 범어필사본과 현대 학계 에서의 연구 동향'이란 주제로 논문을 발 표한 우제선 교수는 '법화경 사본 연구의 필요성과 해외 불교학자들의 법화경 연구 현황'을 중심으로 논제를 이끌어 나갔다.

우 교수는 논문을 통해 "<법화경>사본 들을 연구해 정확한 정판본을 만들고 이 에 바탕을 둔 번역과 해석이 선행되는 것 이 우선"이라고 말했다.

이어 발표한 동국대 지창규 교수는 '법화경의 오경현의 연구'란 논문을 통해 "<법화경>의 바른 이해는 중생과 부처가 틀어 아니라는 것이며 이것은 궁 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관심수행을 이끌 어 내기 위한 방편이다"고 설명했다.

지 교수는 또 "<법화경>의 근본사상은 제법실상"이라며 "이는 주제와 객체, 자 신과 타인, 마음과 신체, 마음과 물질 등 일체의 차이와 차별을 초월한 영원한 생 명의 세계를 말한다"고 설명했다.

이밖에도 중국 항주박물관 펑오쥬청 연구원의 '고려와 대각국사 의천' 동국대 오지연 강사의 '법화경의 사증적 고찰' 등의 논문도 눈길을 끌었다.

노병철 기자

### 불교학회 7월 14·15일 워크숍

한국불교학회(회장 이평래)는 7월 14-15일 하동 향계사에서 '2006 하계 워크숍'을 실시한다.

'불교와 대중문화'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문운시승가대학 명 법스님의 '중국산수화에 끼친 선종의 영 향' 원광대 윤양호 교수의 '불교와 미 술' 한성대 이기향 교수의 '불교와 패 션' 소설가 남지심씨의 '불교와 문학' 등 9편의 논문이 발표된다.

### 한국선학회, 선수련회

한국선학회(회장 현각)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'2006 하계 선수련회'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했다.

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선수련 회는 학술발표회 및 좌선수련, 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.

수련회 둘째 날 열린 학술발표회에서는 동국대 선학과 강사 대원 스님의 '화엄경 에 나타난 해인삼매 연구'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세운 스님의 '상월조사의 생애 에 관한 연구'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.

이날 학술발표회에서 대원 스님은 "<화 엄경>에서 말하는 연화장의 세계는 중생 의 아상과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'아상을 뛰어넘은 세계' 즉 아상도 분 별심도 없음을 깨닫는 것"이라고 말했다.

###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<54>

2020년

'2020 프로젝트'에 세계가 떠들 있 다. '2020년'이라는 숫자가 주는 매력 과 21세기를 맞은 후, 20년이 지나 시점이어서 의미를 붙이는 모양이다. 역사적으로 볼 때 20년 또는 30년이 주는 의미는 크다.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만 살펴봐도 그렇다. 20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 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.

때문에 다가올 2020년을 우리가 어 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'제2의 한강의 기적'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.

이는 비단 국가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. 회사나 개인도 각자 나름 대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.

문명은 빠르게 변화·발전하고 있다. 또한 인류는 진보된 과학기술로 자 연이 수 억년 동안 만들어낸 '생명과 진화'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. 더 이 상 자연이 만들어낸 진화의 속도에 만 족하지 않는 것이다. 이런 일련의 행위 는 유전공학분야에서 여실히 나타나 고 있다.

토마토의 유전인자에 바이러스 유전 자를 끼워 넣음으로써, 특정 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기도 하고, 인간의 유전자 중 늙는 데 기여하는 분자를 찾아내 젊 은 세포를 만들어 내는 것 등이 그것.

이렇듯 '혼돈의 과학기술'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그렇다면 이 땅에 행복

### 과학문명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 발전 공사상 바탕 인류 아름다운 진보 계속돼야

특히 지난 20년과는 다르게, 앞으로 의 20년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. 과학 기술 분야의 새로운 발명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걸 리는 시간도 단축되고 있다. 예를 들어 인쇄술의 경우는 500년이 걸렸고 자동 차의 경우 100년, 라디오는 40년이 걸린데 비해 최근 발명된 무선 전화기 와 인터넷은 겨우 6년 안팎에 우리 생 활 깊숙이 자리매김했다. 미래 학자 조 차도 이러한 속도에 놀라고 있다. 컴퓨 터가 발명되고 난 후, 컴퓨터 전문가는 당시 컴퓨터가 세계에 몇 개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.

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 갔다. 5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당시의 컴퓨터보다 수 만 배 우수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. 이처럼 미래 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할 정도로 과학

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떠난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가.

혹자는 이야기 한다. 부처님의 가르 침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궁 극의 원리라고. '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'를 말하는 것' 자체가 중생의 거 짓 생각이라고.

신라의 고승 의상대사는 '이사형언 무분별'이라고 말했다. '원리와 현상 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두 개 모두 진리의 모습'이라는 뜻이다. 이는 '공 사상'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 나는가를 일깨워 준 위대한 실증적 가 르침이라고 생각한다.

얼마 남지 않은 2020년. 재가 불자뿐 만 아니라 스님들도 과학기술의 변화 를 이해하고 '공사상'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'아름다운 진보'는 계속돼야 할 것이다. ■서울대 전기공학부



그림: 문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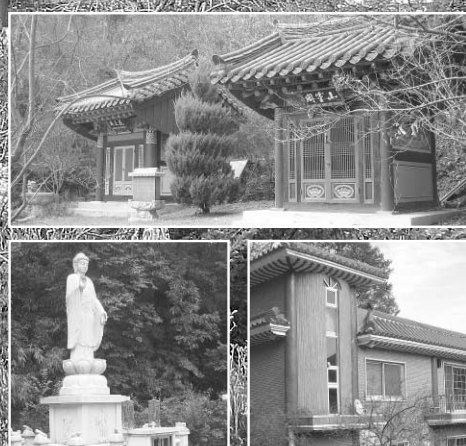
## 사찰매매 및 대출안내

경북 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 
대지 350평(법당 20평, 산신각, 용왕각, 요사채 1층 40평, 2층 30평, 심야전기보일러)  
매매가 4억 3천만원(융자2억가능)

### ※ 불교관련 전문대출 실시 ※

- 사찰매매 잔금대출
- 불사자금 대출
- 기타 대출상담

보현사 실험 전무 서서열  
053)426-1037, 011-527-1037



스님들만을 위한

## 사암오행침술 대 특강

- ▶ 강사: 사암큰스님의 방편술을 계승하신 덕운스님
- ▶ 일시: 2006. 7. 6 ~ 9. 30(3개월)  
매주 목요일(오전 10시 ~ 오후 6시)
- ▶ 자격: 승려신분증 소지자
- ▶ 문의: ☎ 02)3487-2311~3 / FAX 02)588-1056  
H.P 011-335-9351

서울시 서초구 방배 2동 467-3

## 활인정사